

불법주정차로 캠퍼스 곳곳 몸살

주차난 골머리에 차세울 데가 없다

특단의 대책 세워야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해 학내보행이 원활해 보이지는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왜 불법주차 차량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느냐고 의아해 한다. 그러나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에 세워진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걷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면 이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방학 중에도 불법차량들이 북적이는 곳은 특히 외국어교육원 및 중앙도서관 부근. 이 두 곳엔 많은 학생들이 오고가기에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우려된다.

실제 외국어교육원 앞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꽉 막혀있다. 보행자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얹혀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가끔 여기가 주차장인지 도보인지 헷갈려 한다. 외교원은 방학 중에도 영어캠프와 연수, 갖가지 다양한 행사로 외부인의 출입이 잦지만 이곳을 이용할 때 주차장간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외교원 바로 옆에서 '문화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차량들이 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들의 통행 진로를 방해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혜민(생명공학과 2) 학생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며 "장애인과 같이 외국어교육원 바로 앞에 주차해야 할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원을 이용하고 있는 백시현(16) 학

생은 "불법주차 된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래 외국어교육원 옆 새로 건물에 구축되고 있는 자리는 외국어교육원과 인문대 학생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었다. 현재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가 신축되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공간이다. 따라서 지금은 인문대학생들 뿐 아니라 외교관 이용자들이 어디에 주차해야 할 지 난감한 실정이다. 현재 외교원의 주차선 규모는 교차 23대. 이용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주차장 수가 부족한 것을 계속 늘리기 보다는 먼저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법주차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 주차하는 교통관리위원을 계속해서 배정할 것이며 게시판에 매달기 두 번 원거리주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도 올리는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개선에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주차장 규모는 2100여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주차권 발행대수가 2350대, 차량 2부제 등으로 1/5까지 차량이 면제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수요에 맞춰 계속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면 수업 중에 차량으로 인한 소음문제, 주차장 자리다툼 문제 등의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외국어교육원의 주차난에 대해서 "신축되고 있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



외국어교육원 앞 도로에 비양심 양체족들이 차 못 세움이라는 주차금지 표시를 무시한 채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 및 주차 공간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 주변이 혼란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불법주차를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체족' 때문이다. 규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도로에 잠깐 주차했다가 불일이 끝나면 빠지는 양체족으로 인해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간다. 특히 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은 중앙도서관 정문 앞. 이로 인해 차량들은 이곳을 다닐 때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엔 '차 못 세움'이라고 새겨진 표지판이 있지만 그 뒤에 당당하게 양쪽으로 차를 세운 모습도 볼 수 있다.

강소진 기자

국립대 최초 사회교육대학원 신설

스토리텔링학과·심리치료학과 등 15명 모집

오는 12월 신입생 선발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사립대학에 사회교육대학원이 신설되고 오는 12월에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회교육대학원은 야간수업형태로 석사과정(2년6월)으로 운영된다. 모집학과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학과 및 심리치료학과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 첫 해에 15명을 뽑는다.

이 대학원은 국내 국립대학 유일의 사회교육대학원으로 제주교대와외의 통합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특화 분야의 특수대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스토리텔링학과는 문화기술(CT)과 결합하면서 문학,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광고, 디자인, 홈쇼핑, 테마파크, 스포츠 등의 산업시장이 커지고 기업화합에 따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에 스토리텔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되고 있다.

더불어 신설되는 심리치료학과는 삶의 질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미술, 언어, 웃음, 식물 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학문 분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장년층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심리적 긴장과 불편감 스트레스 등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

양진건 학생처장은 "개설되는 두 학과는 관련 산업의 시장이 커지고 기업화합에 따라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다양해진 만큼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김창인 회장의 '끝없는 제주대 사랑'

재일제주인센터 기금 30억 이어 5억 쾌척



김창인 회장이 지난 4일 일본 남해회관을 방문한 고충석 총장에게 발전기금 5억원을 전달했다.

재일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현금 30억원을 쾌척한 재일동포 김창인(金昌仁·79) 회장이 5억원을 추가로 쾌척했다.

김창인은 지난 4일 자신이 경영하는 남해회관을 방문한 고충석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재일제주인들의 삶과 철학

을 후학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센터 내에 '김창인관'을 설립해 김 회장의 인생철학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센터가 제주의 후학은 물론, 재일제주인 3·4세대들에 대한 '교육도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재일제주인센터 내에 자리할 '김창인관'과 박물관, 올해 말 개원예정인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국제교류회관, 학생생활관 등과 연계해 국제화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재외도민 및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을 초청해 한국말, 한국문화, 제주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사령

강소진(영어영문학과 1)
기자로 임명함

제주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한라산 소주는 향토기업으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우수 교수의 연구비와 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1년 제주대학교 의대 발전기금 2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라산 소주는 제주의 경제와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한라산 소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hallasan.co.kr

홀짝제 잘 되나 봤더니... 역시나 '하나마나'

개강 후 강력 단속에 교통관리비 환원 문제 부상

◇유아 동승차량 비표발급대상	◇카풀차량 비표발급 대상
-맞벌이 부부나 직장여성에게 한함 -사실확인은 의료보험 및 재직증명서에 한함 -신청인의 주거지 주소와 영아원, 유아원, 유치원 및 위탁지(친인척)와 근거리인 경우(주소가 같은 동단위 등) 발급 불가	-소속공공기관에 등록된 승용차를 보유한 3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카풀 참여 차량 3인 미만 탑승시 공공기관출입 불가 -카풀 참여 차량 증명은 비표 발급기관 출입시만 유효, 타기관 방문시 비표 및 탑승 인원 상관없이 홀짝제 적용

제주대는 지난달 21일 '승용차 홀짝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특성 및 현실성을 반영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리'는 정무지시에 따라 최근 입산부 차량, 유아동승차량, 카풀 차량에 대해 홀짝제를 면제시키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차량 2부제) 보완'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제주대는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아라캠퍼스의 경우 방학 중 경비직원 한 명이 아라캠퍼스 입구 중앙에서 서서 교직원 차량의 홀짝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개강과 동시에 하루에 세 명이 교대로 홀짝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 입구에서 차량 통제를 맡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홀짝제

참여정도를 물어봤더니 "지키는 사람은 잘 지켜주지만,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생 지나가버린다."며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학생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표실했다.

또 차량 2부제 보완책인 입산부, 유아동승차량, 카풀 3인 이상 차량의 홀짝제 면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표가 이미 발급되어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풀차량에서 3인 이상이 항상 동승하여 학교로 들어오는다는 물음에는 "거의 혼자 타고 온다"고 말했다.

앞으로 홀짝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참여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직원조차 지키지 않는 홀짝제와 홀짝제 보완제도를 학생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홀짝제 보완제도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차량홀짝제는

현재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교직원 등록 차량이 약 300여대, 학생 등록 차량이 2000여대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홀짝제 참여가 캠퍼스 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고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 8월말까지 차량 홀짝제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채 진입하거나 주차할 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홀짝제를 지켜주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전면 출입을 금지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또 학생참여에 대해 "총학생회 측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도 이번 학기부터 차량 홀짝제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학생참여가 이뤄질 경우 학기 초 교통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줄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수습기자

제주대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확대

교직원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도 포함

재학생은 20% 감면 혜택

제주대병원(원장 김상립)이 제주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무과에 따르면 제주대 교직원은 본인 부담금의 30% 감면 혜택과 함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도 20%를 감면한다. 아울러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교직원 본인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종전

대로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적 수술 및 구강안면외과적 수술에 따른 비용, 이종지급되는 진료비, 고가의 약제비 및 재료대 원가 실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의료비 감면 방침을 결정했다"며 "병원 내원 시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리조교 재직하던 최주화 조교 백혈병 투병...

아열대천환경누리사업단 생명공학부에서 누리조교로 재직하던 최주화 씨가 백혈병으로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6월 백혈병 판정을 받은 최주화 조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대에서는 최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동안 힘든 병마와 싸워야 할 최씨를 위해 정승원(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 조교) 씨가 헌혈증 기

부와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헌혈증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 적당히 모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랜시간 힘든 병과 싸워야 할 최선생님을 위해 제주대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교선생님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주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연락처=754-3340, 011-9043-1687
계좌=정승원, 138627-65-367891

영문표기 변경 69% 찬성... 후속대책 착수

총학생회도 표기 및 도메인 변경 찬성

"신중 처리해야" 요청도

제주대 영문표기 및 도메인 변경을 위한 논의가 대학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부에서는 영문표기 및 도메인 변경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공청회를 이달 중 열었다.

현재 담당부서인 기획평가과는 "우리대학 영문 명칭이 옛 표기법을 사용함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내 지자체 및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방법과 혼용되면서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학 차원에서 통합 제주대학교가 출범함에 따라 통합대학 UI, 각종 홍보물, 사인물 등을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영문표기 문제를 아젠다화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 "현재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으로 jeju라는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만큼 대학의 이미지를 세계화하고 동북아 중심대학이라는 비전 실현, 도내외의 수요자 중심의 쉽고 더 실용적인 영문표기를 위해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평가과는 지난 4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에는 영문표기 변경 추진 기본안을 확정했으며 학무회의의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직원들 중 33.65%만 조사에 응답해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학무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기획평가과는 지난달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온라인 조사도 진행했으며 2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설문결과 70.1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중 찬성은 68.80%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의견은 총학생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찬성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대의 영문표기 및 도메인 표기 현황은 Cheju National University, 약칭은 CNU이며 대표 도메인으로 www.cheju.ac.kr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표기 방법이 추진 중에 있는 형식으로 변경될 시 영문표기방식은 Jeju National University, 약칭은 JNU, 도메인은 의견수렴과정 중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던 jeju.ac.kr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문표기 변경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영문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 2001년부터 논의돼 왔다. cheju는 제주대의 고유명사라는 의견과 함께 음성학분야에서의 cheju와 jeju의 발음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현재까지 국제학회 등에 게재된 제주대 교수들의 논문에 대학 명칭이 cheju로 표기돼 있어 jeju로 대학 영문표기 방법이 바뀔 경우 통계 색인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었다.

이거석(영어영문학과) 교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우리대학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cheju나 jeju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정하기 나쁠이나 현재 cheju가 고유명사로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바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에 참여했던 송현선(통역대학원 한중과) 교수는 "중국의 베이징대학의 경우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명이 Peking에서 Beijing으로 바뀌었음에도 영문표기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며 "변경에 앞서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하며 언어학과 음성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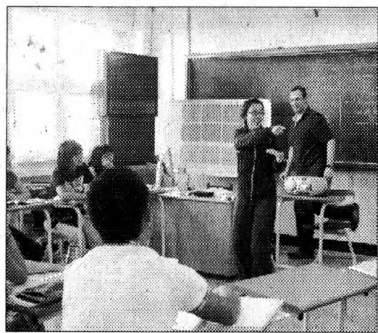
박종건 기자



대학 표기가 cheju에서 jeju로 바뀔 경우 제주대 입구 등 대학 전체의 표지판이 바뀐다.

제주대 단신

여름방학 독일어 특별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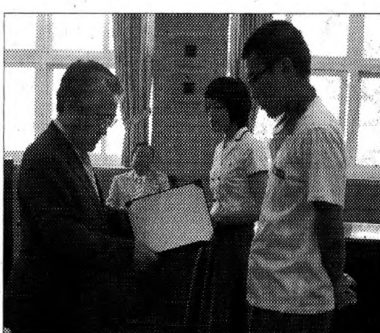


제주대 독일학과(학과장 송성희 교수)와 독일 본대학의 언어교육연구소(SLZ)가 함께 주최한 여름방학 독일어

특별연수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총 120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현지 독일어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업은 처음 독일어를 배우려는 초보자를 위한 반과 독일어를 사전에 학습한 이들을 위한 반 2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독일 본 대학교 SLZ와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추천 독일인 교수들로 이뤄진 수업을 받았다.

한편 독일어 연수는 매년 개최할 때마다 연수를 수강한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로 17차를 맞았다.

국어국문학과, 전도 고교 논술대회 개최



국어국문학과·국어문화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전도 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본교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부성필(남녕고3) 학생이 대상, 현은우(중앙여고1), 문성혁(오현고3)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6명이 총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자문화우월주의를 벗어나 우리의 것에 담긴 보편적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명제를 고민해보자는 것이 이번 논제의 핵심이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자민족우월주의 문화를 경계하는 의식을 잘 파악하였지만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을 냈다.

이광복 교수 논문 세계권위지 수록

경추 손상 연구

이광복 교수(의학과)의 논문 "경추부 신진 손상에 연부조직 손상의 새 분류법의 유용성"이 척추외과 분야의 국제학술지(SCI) 중 최고의 권위지인 "스파인" (Spine)이라는 잡지에 7월 1일자로 발표됐다.

경추손상에 대한 연구에서 근육이나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손상인 경우 척수 손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식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광복 교수가 만든 새로운 분류법은 연부조직 손상의 정도를 세심하게 분류함으로써 척수 손상에 대한 예측 판단과 진단 및 치료 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방송국 내달12일 영상제 개최

교육방송국이 다음달 12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CEBS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드라마, 플래시, 광고, 뮤직비디오, 다큐 등으로 표현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특별상은 I LOVE 0000이라는 주제로 3분내외의 UCC를 제작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8월 25일 까지이며, 예선은 8월 26일 오후 6시에 제주대학

교 언론·출판센터에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에 총장상과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 총장상과 상금 30만원 △우수상에 총장상과 상금 20만원 △특별상에 총장상과 상금 10만원(종부시상가능)이 지급될 계획이다.

문의 전화= 754-2284.

홈페이지 = http://cebs.cheju.ac.kr

교수 5명, 문광부 등 우수도서 선정

제주대 교수 5인의 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2008년도 상반기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도서에는 양성기(토목환경공학전공) 교수 저서의 '지구와 수권과학', 하승수(법학부) 교수 저서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우수 도서에는 신애경(교육대 과학교육전공)의 저서

'초등과학개념사전'이 선정됐다.

또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장승희(교육대 과학교육전공) 교수 저서의 '전통윤리교육'과 양영철(행정학과) 교수 저서의 '주민투표제도론'이 선정됐다.

한편 제주대 출판부가 지난해에 발간한 오창명(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도 대한민국의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순동 교수, 박테리아 발견 세계 3위.

제주대는 세계 10위 기관

생물교육학과 이순동 교수가 지난 해 '국제미생물계통분류학회지(IJSEM)'에 10종의 신종 박테리아를 발표해 세계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 학회지는 국제적으로 신종박테리아의 정식 등록이 유일하게 이뤄지는 영국의 학회지로 이번 발표에서는 기관별로 제주대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하였다. 이 교수는 2006년에도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해 세계 6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146종의 신종 박테리아를 발표, 2005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열대생물·문화콘텐츠 우수사업단 선정

교과부 평가에서 아열대생물은 전국 2위

2억 2천여 만원 추가지원 받아

지난 5일 2008년 교육부평가 우수 사업단으로 제주대 아열대 생물 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송창길 식물자원 환경전공 교수, 이하 아열대농리사 업단)과 세계명화의 섬 제주문화콘 텐츠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전성수 산업디자인학부 교수)이 각 각 대형과 중형사업단에 선정됐다. 아열대 농리사업단의 경우 2008 년 연차평가에서 종합평가 2위를 차지해 우수사업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사업단은 2년 연속 우수 사업단으 로 선정되면서 큰 영예를 안았다.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된 학교 19 곳 중 한 대학 내 대형과 중형 사 업단이 복수로 선정된 곳은 제주대 와 전남대 단 두 곳뿐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총 2억 2천 3백만 원 (아열대 농리사업단에 7천 2백만 원, 문화콘텐츠 사업단에 1억 2천 1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송창길 단장은 "취업교육트랙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제주지역의 혁신산업인

친환경 농업과 생물 산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신경 쓸 것"이라며 "향후 수익사업인 친 환경 농업인증센터, 전공 프로그램 별 대학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 는 등 학생들을 지역 정착형 참의 적 전문 인력으로 키워 지역의 산 업경쟁력을 선도하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28 개 농리사업단을 대상으로 핵심지 표와 자체성과지표 등을 중심으로 수개월간 걸쳐 다단계 심사와 조 사를 병행해 우수 사업단 대형 9 개, 중형 6개, 소형 6개 등 총 21 개 곳을 선정했다. 강소진 기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선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도 지정

평생교육원(원장 김성준 행정학 과 교수)이 지난 7월 22일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지정됨에 이어 8월 5일 에 2008년도 '대학부설 평생교육 원 활성화'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소의계층 학습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 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설립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도내 유치원, 대학부설 교육원 관 련 종사자들이 자격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을 감소시켜 제주 평 생교육사의 배치대상 기관에 대한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돕는 등의 공 정적인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

다. 제주대 부설 평생교육원은 오는 9월부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격취득과 관 련, 2급은 10개 교과목에 총 300 시간을, 3급은 7개 교과목에 총 2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의계층 학습비 지원사 업'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 득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 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노인(만 65세이상, 1945이전 출생 자), 다문화가정,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새 터민 등이 제주대학교부설 평생교 육원에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에 수 강할 경우 1인 1개 교과목에 한해 서 학습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

게 된다. 학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다. 제주대는 소외계층 뿐만이 아니 라 모든 지역민들에게 강좌지원자 격을 부여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1일(금)부터 오는 27일(수)까지며 5개 과정 93개 세부교육강좌를 9월 1일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인 터넷과 직접방문, 전화 또는 팩스 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평생교육원(754-2704)으로 문의, 또는 제주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psg.chju.ac.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규정 수습기자

의학전문대, 입학준비 교육과정 모집

의학전문대학원이 2008년 제1기 자연과학대학 부설과학아카데미 의 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의학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신 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의학전문

대학원에 입학에 필요한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1, 2 과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은 학기당 15주 180시간으로 구성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에 시작해 3시간동안 강의를 진 행한다.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는 제주대 총장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자를 선정해 각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 료 후에도 기별·지역별 모임을 통 해 수료생들에게 연대 활동과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서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5시 까지이며 입사지원서는 제주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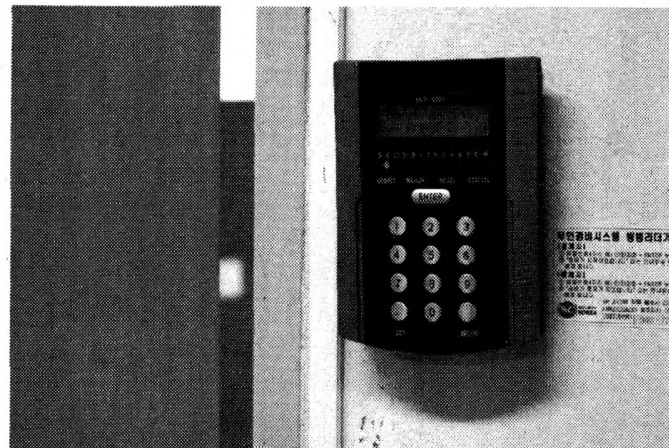
7시에 시작해 3시간동안 강의를 진 행한다.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는 제주대 총장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자를 선정해 각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 료 후에도 기별·지역별 모임을 통 해 수료생들에게 연대 활동과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서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5시 까지이며 입사지원서는 제주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무인도난경보기 '무용지물' 전략

경보기 먹통에다 사후방범 관리도 부실

아라캠퍼스 보안경비시스템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내 몇 곳의 단과대를 점검한 결과, 문에 설치된 경보 기 센서가 접촉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가 하면, 경보기 가 정상적으로 울렸을 때 경비원 의 출동 시간이 기존의 법정 규 정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출동한 경우와 아예 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제보됐다.

자연대 한 교수는 "아침에 무 인경비시스템의 잠금 해지를 깜 박 있고 실험실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 근을 할 때가 돼서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경비시스템이 작동하거 나 경비원이 찾아와 점검하는 일 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인문대의 한 교수는 "무인 경보기 잠금을 해지하지 않은 상 태에서 시간을 측정하며 경비원 을 기다려 왔으나 경보음을 울린 뒤, 기존 예정 출동시간인 20분 이 한참 지나도 경비원이 출동하 지 않았다"며 "전화가 오고 더욱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경비직원 이 연구실에 방문했었다"고 말했



본부에 있는 한 기관의 경보기가 잠금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구성원 들이 무인 경비시스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중 일부는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해 무인경보기를 아예 사용하 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기완(해양경찰학과전공) 교 수는 "현재 대학건물의 출입이 외부인, 학생, 교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기에 도난 등의 문제가 발 생될 경우 범인을 찾아내는데 어

려움이 많다"며 "대학 자체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 과 함께, 강의와 연구 공간을 따 로 배치해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대의 도난경비시스템 은 시큐리티 코리아라는 사실 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제주대와 계약한 이 업체는 계약 시 타 업체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경정 일할 방식에 서 타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경

비업체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현재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제주 대 경비를 총괄하고 있다. 대학 주요부서에 설치된 경보기에 침 입자가 감지될 시 제주대에서 전 산업무 등을 보고 있는 직원이 제주대 캠퍼스에 24시간 대기 중 에 있는 경비원 1명에게 알려 20 분 내로 출동하게 돼 있다. 그러 나 대학 내에 항상 상주해야 할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다. 학역에 있는 연구소의 경 보기가 울리거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 제주대는 외부침입 자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된다.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 경비를 맡고 있는 업체가 계약기간을 끝 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할 예정에 있어 정상적인 업체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며 "다음해 3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대학의 경 비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비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당직 하며 경비를 보고 있는 직원을 1 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심야 경 비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의학연구소 환경성질환센터 지정

아토피·알레르기 환자 대상

환경부 지정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연구 소(소장 홍성철 의학과 교수)가 지 난 7일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 정됐다.

의학연구소는 앞으로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환자를 등록하고 관 리하는 한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교육·홍보사업도 병행할 예정 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 를 심화해 환경오염과의 상관성을 조사 및 연구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 뿐 아니라 자치도와 본교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 업이기에 제주도 전체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성철 소장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 염환자가 많은 편인데 이번엔 환경 성질환 연구센터가 도내에도 생겨 연구가 강화되고 서비스가 질적으 로 개선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사업을 위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과 함 께 서울 삼성병원(아토피과부)과 고려대 안암병원(천식), 단국대 의 료원(소아 발달장애) 등 총 8개소 를 지정했다. 또 환경성질환에 대 한 과학적인 연구규명 및 감시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까지 연구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진 기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동아리 모집

내달 10일까지 신청 받아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도양희 전기전자공학과 교수)가 다음달 1 일부터 10일까지 '느영나영 학습동 아리'신청을 받는다. 이번 학습동아리는 전공 및 교양 교과내용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학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최된다. 또 소규모 토론식으로 진행될 학 습동아리 활동은 참여하는 학생들 의 학업성취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 니라 대학 내 새로운 학습 문화 및 토론 문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 가 모아지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습동아리를 통해 선후배와 친구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공부하

면서 우애도 쌓고 학업능력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집분야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 다양한 학문의 공통적인 주제로, 본교 재학생 4~6명과 지 도교수로 팀을 이뤄, 교수학습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교양동 2층)하면 된 다. 단, 어학시험 및 취업, 국가고 시, 자격증 준비 등의 시험은 이에 제외된다. 지원사항은 각 팀 30만원씩, 우 수학습동아리를 5팀 선정하여 각 팀별로 2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11월 3일에 열린 학 습동아리 에세이 공모전에서 5편을 선정하여 편당 10만원씩을 시상할 예정이다. 강소진 기자

법학부 신입교수 프로필



박규웅 부교수
법학부-민법
△전국대 학사
△전국대 석사
△독일트리어데 석사
△독일트리어데 박사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윤동호 조교수
법학부-형법
△고려대 학사
△한양대 석사
△고려대 박사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강주엽 조교수
법학부-행정법
△동아대 학사
△동아대 석사
△독일 오스나브뤼크데 석사
△독일 오스나브뤼크데 박사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김지연 조교수
법학부-국제거래 및 투자
△연세대 학사
△연세대 석사
△연세대 박사과정 수료
△미국 Syracuse대 Jucis, Dr.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박선아 조교수
법학부-법조실무
△한양대 학사
△경북대 석사과정 수료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김은주 전임강사
법학부-공법
△이화여대 학사
△이화여대 석사
△이화여대 박사
△최종학위(전공)=법학박사

국제교류 대학 리포트

퍼텍스 A&M대학

해양 탐사 포스터 상 수상

텍사스 A&M대학의 Deep Earth Academy는 교육출판협 회(AEP)로부터 Sea90E와 관 련한 순환조사포스터와 웹사 이트 창안관련 분야에서 공로 상을 수상했다. 해양학과 교 수 Will Sager와 그의 제자 6 명은 제 작에 공헌했다. Sea90E포스터에서는 위치조

사가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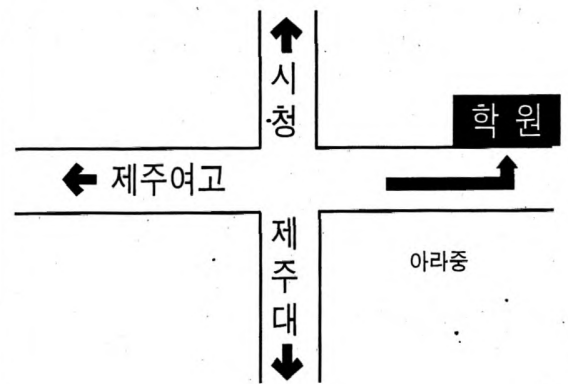
한·일학생이 함께한 '이웃나라의 빈곤'

사가대학은 지난 6월 '이웃나라의 빈곤'이라는 주제 로 패널에 의한 토론과 워크 쉘을 개최했다. 사가대학 국 제공헌추진실과 국제협력기 구가 공동주최가 되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세계 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배경 원인과 해결방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최고의 경쟁력을 향해 뚝다 ④ 수의학과

교수·학생 한몸되어 연구역량 강화 이끈다

학과 연구역량 세계적 수준... 올해 단과대학으로 승격

수의학과(학과장 이주명 교수)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완동물과 관련한 직업이나 연구 분야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의학 분야는 미국산 쇠고기, 조류독감, 줄기세포, 배아복제 등 그 연구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수의사의 역할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의학과는 지역사회의 자연계, 생태계, 인간생활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양하고 방대한 학문을 탐구하며 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인재양성의 산실이자 제주지역의 동물연구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다.

한 학년에 40여명의 학생들과 각 분야의 20여명의 교수들이 이끌어가는 수의

들에게 가르친다. 수의미생물학, 생리학, 조직학, 해부학, 화학, 병리, 약리, 임상병리, 내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물 치료와 연구에 관련한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다.

의과대학이 사람의 몸과 건강에 관련한 모든 연구를 진행한다면 수의학과는 동식물에 관련한 모든 학문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다양한 세부전공을 연구하는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수의생리학 교실 등에서는 더 심화된 내용의 연구와 조사, 실습이 이뤄진다. 이론적인 학문탐구 뿐 아니라 추후 수의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다양한 수의학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가고시 공부에 열을 올린다. 수의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 소동물 및 대동물 수의사, 교육직 수의사, 야생동물 및 해외 활동 수의사, 수의 장교, 공중보건분야, 기초과학 분야 연구, 국가연구직 및 수의직 공무원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졸업생 김승준(89학번) 박사가 경복대, 고재홍(90학번) 박사가 중앙대 의대, 김현우(94학번) 박사가 충남대 교수로 임용되며 모두 7명의 졸업생이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학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학과 생활에 매

진하다보면 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은 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들이 학업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과 활동, 학과 연구부와 연계한 봉사활동 및 행사 등은 그들의 젊은 열기를 뽐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학생활동 중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으로는 vaccine라고 불리는 수의학과 임상진료동아리이다.

수의학 영문 스펠링 veterinary medicine의 vet과 vaccine을 결합한 것이라고 한다. 임상동아리 vaccine은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의 개체 조절을 통해 제주도 지역의 환경생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제주도 생태계의 가장 상위 포식자는 유기견 개나 고양이들이다. 이들은 산과 들, 도시에 서식하며 하위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 유지에 있어 상위포식자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시키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 먹이사슬을 지켜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학과 행사는 애견한마당이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애견에 대해 알아가고 애견과 그 가족들을 위한 자리이다. 행사에서 수의학과는 애견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애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 학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밴드 동아

수의학과역의 역할 그리고 미래

리의 연주, 도내 애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한 행사 등은 한껏 애견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수의학 분야는 날로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수의학분야는 과거의 단순 동물치료 등의 분야를 넘어 생명공학 및 의료학과 밀접한 연구로 그 분야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 수의학의 핵심 분야인 신약개발과 그 안정성 평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동물 모델연구, 또 의학 계열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연구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수의학의 동향에 있어 제주대 수의학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제주지역의 동물생태계 연구를 맡고 있는 동물위생연구소의 운영, 제주도 HACCP 공식 인정 기관으로서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검역, 한국마사회와의 산학협력으로 제주마산업의 발전, '보물결'이라 불리는 제주 한우의 브랜드화 및 품질관리 등 수의학과와 지역사회 역할은 끝이 없다. 우리 생활속 하나하나에 그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이다.

수의학과는 1953년에 창설돼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단과대가 출범한지는 불과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단과대 건물의 미확보, 수의예과의 통합으로 학부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우려하는 과제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것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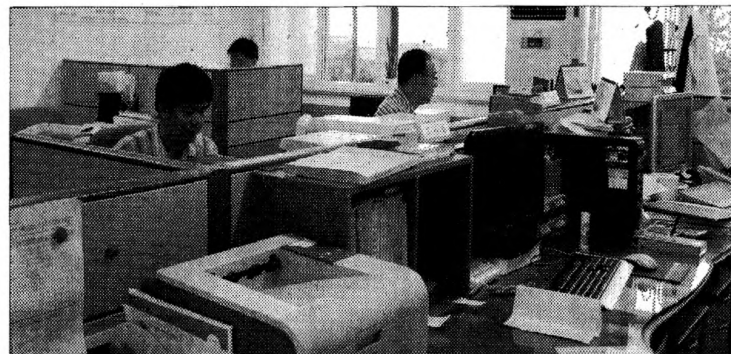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막중한 역할을 해 나가는 수의학과 구성원들. 그들과 같이 묵묵히 자기 몫을 그리고 발전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학교와 제주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수의학과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박준경 기자

캠퍼스 산책 - 경영사업단

대학 수익사업, 아이디어로 사활건다

발전기금 및 교직원아파트 신축 등 업무 다양



경영사업단 사무실의 모습.

대학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재정'이다. 재정구조 개선 없이는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발전기금 모금 확충 등의 판에 박힌 대학 수익 사업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 대학은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이어서는 학교 재정에는 보탬이 되지는커녕 적자만 내는 사례도 적잖아 대학 간 아이디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영사업단(단장 홍성철 의과대학 교수)은 이러한 대학 수익 사업의 중심에서 있다. 경영사업단은 고층 석 총장 취임 후 한 달 여의 행정부서 개편 검토 작업과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인력배치 및 업무 분장 등을 마무리하고 2005년 7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경영사업단은 각종 수익사업의 경영기획과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종전 수익사업의 확대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수익의 최대 창출을 목표로 부가가치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확대와 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경영사업단은 교액 및 소액 발전기금 모금, 적극적인 발전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극대화, 골프아카데미 등 수익사업체 발굴 및 운영, 국제교류회관, 서귀포연수원 운영, 각종 대학 경영사업 기획 및 자문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또 다양한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대 및 제주대사랑카드, 발전후원의 집, 대형매장 이용 후원금까지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국제교류회관은 지난해 202건의 회의 유치 수입을 포함해 게스트하우스 수익사업을 통해 지난해 해에만 모두 2억여 원을 벌었고,

24개실을 운영하는 서귀포연수원은 작년 1억7천여만 원을 대학 재산으로 보탬다.

또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BTO방식에 의한 교직원아파트를 건립해 사업영역을 넓힌다. 이 아파트는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40평형 48세대, 20평형 64세대, 12평형 56세대를 분양하게 된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무주택 교수 및 초빙교원, 행정직원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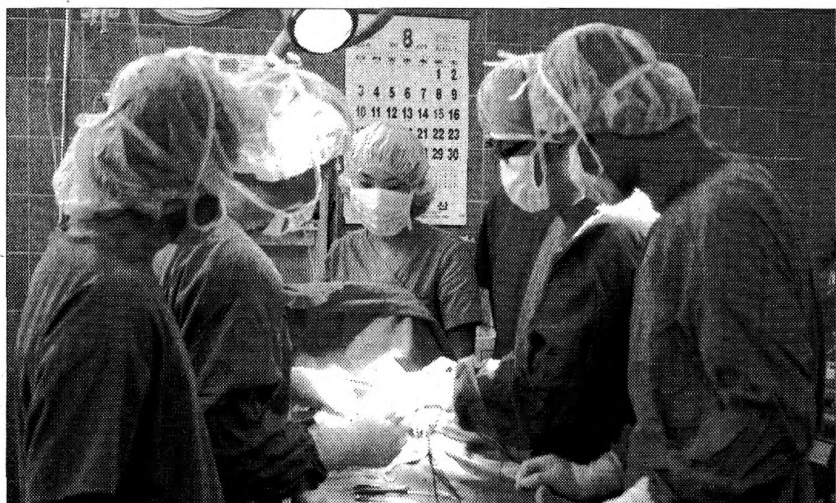
최근 들어서는 복합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차별화·윈' 아이템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다.

신축 제주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주대는 내년 3월 병원 완공을 목표로 병원 입구에 지상 3층 규모로 2동의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면적 900㎡ 규모의 3층 건물에는 약국과 편의시설, 연구실 등이 들어서며, 연면적 300㎡ 규모의 또 다른 건물에는 유아복지시설, 원로형 직원숙소 등의 임대사업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힌다.

이 밖에도 제주대 입구 동쪽에 들어서게 될 신축 박물관 및 재일본재주인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일대는 대학구성원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강태영 제장은 "대학도 자원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가 왔으며 대학의 성공적인 수익사업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수의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동물의 투석수술을 하고 있다.



수의학과 구성원들이 동물들을 진료하는 하계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 신당 이야기

하순애 지음

제주대학교출판부

신당은 제주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이야기, 그이야기가 바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로서 절편히 녹아 있는 장소이다. 각 신당마다 그 역사가 다를지언정, 신당에는 시간이 아주 두껍게 내려앉아 있다. 신당에 쌓인 시간의 두께를 어떻게 가늠할까?

이책은 신당에 쌓인 두꺼운 시간을 헤집고 다니기 혹은 시간을 말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 신당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이 책은 신당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신당들은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소재에 다름 아니다. 이 책에서 신당이 씨줄이라면 날줄은 제주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이다. 또 신당이 날줄이라면 씨줄은 사람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성찰이다.

시간과 공간, 문화와 역사, 신화와 신앙, 욕망과 상징 등을 신당이라는 소재를 통해 엮어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이 이야기가 제주문화로부터 사람살이를 읽어내는 창(窓)이기를 희망했다. 다른 하나는 당신앙과 신화가 생생히 살아 있는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을 희망했다.

제주도 신당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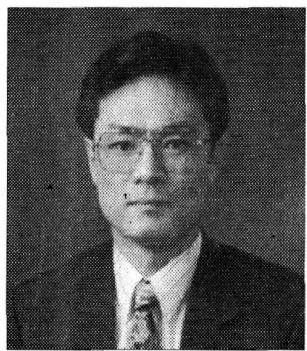
하순애 지음

제주대학교출판부

정가 13,000원

◆ 국경 없는 대기오염물질

중국 대기오염물질 한국에 심각한 피해 제주는 오염 연구 최적지... 환경문제 중장기 대응해야



강창희 (화학과 교수)

이웃은 사촌이라는데 요즘 한반도 주변의 이웃은 사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중국은 백두산 동북공정에 이어 이어도까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미국 립지리정보국이 이어도를 무국적 암초로 표기하면서 수구초심 지켜 온 우리의 이상향을 자국 영토에 영입하려 시도하고 있다. 또 이번 여름에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한 가시파래, 적조, 저염분수까지 제주 근해로 접근하여 도민을 긴장시켰다. 다른 이웃 일본은 어떤가? 기회만 있으면 수 없이 반복해 온 독도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육상, 해상에서 서로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육·해상 뿐만이 아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지점의 편서풍 풍하 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대륙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북경의 대기오염 개선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은 용이한 확산성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 쉽게 주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북경은 인천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남짓한 편서풍 풍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풀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 국경을 넘는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물질 문제 역시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를 안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 정책과

경제 발전으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아황산가스(SO₂)를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의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1990년에 3,370만톤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는 높고, 유럽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연간 7,500만톤 정도가 되어 유럽과 미국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더 많게 되고, 2020년에는 최대 8,000~11,000만톤까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에너지 블랙홀 국가라는 별칭까지 듣고 있다. 중국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990년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연료의 76%를 황 함량이 높은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 평균(28%)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50만톤 정도로 동북아시아 배출량의 4.6%를 점유하여 87%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해서 약 5%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질소산화물(NOx)의 연간 배출량 역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8%를 배출하여 중국과 일본의 약 70%와 1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변 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들이 장거리 이동하여 한반도로 유입될 경우, 강우의 산성화는 물론 대기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한반도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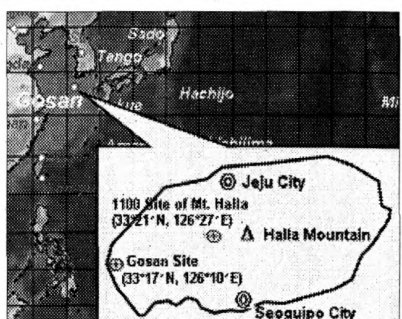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 Long-Range Transport)은 동북아시아에서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수행되고 있다. 2004년에 중국 샤먼에서 개최한 제7차 회의에서는 중국의 대련,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제주도 고산 등 3국이 합의한 8개 지점에서 지표 및 상층의 대기오염물질들을 공동으로 측정할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199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침적되는 전체 황산화물 465,000톤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93,500톤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의 이치가와 박사팀이 자국내 20개 산성비측정소에서 황산염을 측정하여 발생기

원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일본의 산성비 기여도는 중국 약 50%, 한반도 15%, 일본 자체 3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발표 결과와 LTP 사업에서 한·중·일이 공동으로 발표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고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장거리 이동 영향이 다소 축소되어 발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주도는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연구의 최적지

대기오염물질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는 주로 월경성 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의 Kenting, 홍콩의 Kato-Crooked Island, 중국의 Waliguang Mountain, 일본의 Okinawa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산업시설이 거의 없고 인구밀도가 낮은 청정지역이라서 국지 오염원의 방해가 없이 순수하게 장거리 이동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장거리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에서는 1990년대 이후 PEM-West A, PEM-West B, ACE-Asia 등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되었고, 2005년부터는 UNEP와 IPCC 주관 하에 AB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제주도 내 청정지역인 고산(한경면 고산리 소재 수월봉)과 한라산 1100 고지에 측정소를 마련하여 국



제주도의 대기오염 배경농도 측정소(고산 측정소와 한라산 1100고지 측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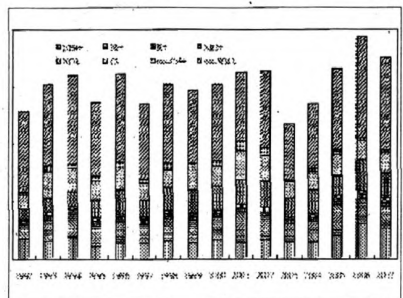
내의 여러 연구기관 및 대학들과 공동으로 이러한 대기오염 측정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대기여로졸 분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그림참조).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전망과 대책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당분간 큰 증가세를 보일 것이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은 황사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류나 양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오염 영향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가능성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 한반도가 황사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다 정량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정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감한 분쟁거리로 부상할 수도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중환경협력점', '한중일 LTP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 '한중 황사협력사업' 등과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환경오염의 피해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이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 고산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여로졸 성분의 농도(시료수 2337개)

한국의 책

세상을 바꿀 '긍정의 힘' 한국판 자기계발서로 인기



『무지개 원리』
차동엽 지음

각종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무분별한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요즘에 섰을 책 한권을 들춰보기가 버거워지기도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기하게도 책을 읽게 하는 힘을 가진 한 권의 책이 있다. 바로 '무지개 원리'란 책이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이 책과의 만남에 대해 감사할 수 밖에 없었고, 매순간에 다가오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처세적인 권고에서 탈피하여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며 생의 목적을 제시하여 저절로 다른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게끔 하는 힘을 준다. 또한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고, 원리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참 잘 읽히는 책이다.

현대의 우리에게 전인적인 자기 계발 원리가 필요하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유대인이 매일 두 번씩 암송하는 '세마 이시라엘'에서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감성 계발)', '목숨을 다하여(의지 계발)', '힘을 다하여(지성 계발)' 임하는 자세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이를 '거듭 거듭(교육 및 훈련의 반복성 지속성 성취성)' 가르치고 행하도록 이끈다. 놀랍게도 이 원리는 '인간의 뇌가 크게 좌뇌, 우뇌, 뇌량의 영역으로 나뉘어 이들이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연합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현대 두뇌 연구 성과와 크게 일치한다.

이 무지개 원리의 완성을 위해 저자는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대학생 시절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을 읽고 크게 영감을 얻고, 탈무드의 예지를 만나 교육에 관련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뇌에 모든 가능성이 집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된다. 이후 10년간 이러한 정보와 깨달음을 정리하여 무지개 원리가 탄생하였다.

무지개 원리의 세가지 특징은 첫째, 무지개 원리는 희망의 원리이다. 둘째, 무지개 원리는 일곱 가지 실천의 원리이다. 셋째, 무지개 원리는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통합의 원리이다.

가톨릭신부인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신앙적인 교리보다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생활 속에 녹아있는 행복의 법칙들을 경쾌하고 날카롭게 발견해냄으로써 워즈워드의 시처럼 우리들의 가슴을 기쁨의 무지개로 뽀개 준다.

시중에 각종 처세술 위주의 성공학, 행복학, 심리학 등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와 말이나 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책은 무지개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직접 살아가는 저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의 배터리를 기쁘게 가득 충전할 수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우리나라의 지혜처럼 '감사'라는 화두로 무지개원리의 결말을 맺는다. 긍정적인 생각의 감사, 지혜의 감사, 꿈을 품는 감사, 성취를 믿는 감사, 말을 다스리는 감사, 습관을 길들이는 감사,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감사로 지혜에 대한 실천을 주문하고 있다.

올 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책이라 감히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다.

고진훈(경영사업단) 직원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윤용택 지

제주학총서 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윤용택 지

제주도의 문화가 독특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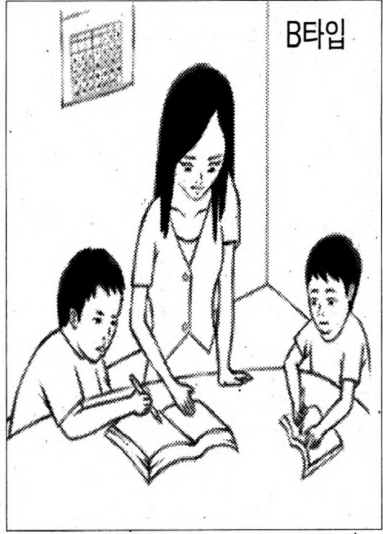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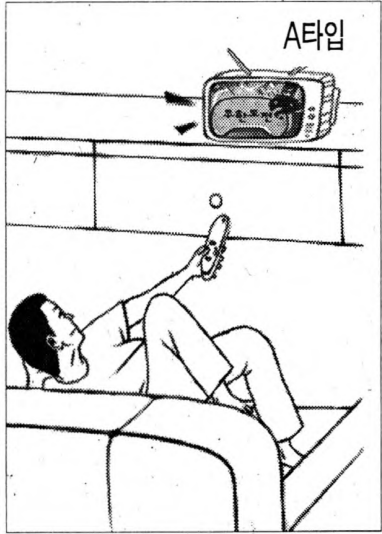
첫째는 제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들을 흡수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게 분화시키고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즉 문물의 근원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제주에 맞게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섬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화들이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문화의 집결처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의 원형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출판부
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정가 12,000원

즐기는 **놈** 경험하는 **놈** 준비하는 **놈**

방학동안 당신은 어떤 타입?



일러스트=허승 특별기자

A는 일어나면 바로상자를 통해 세상을 본다. 방학동안 세뇌는 계획은 그의 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르바이트와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방학은 나를 재충전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B는 여는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스케줄을 본다. 방학동안 독서를 하고, 다양한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매일 색다른 경험을 계획하는 그에게 약 두 달간의 방학은 부족하다.

C는 오늘도 도서관이다. 자격증,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 요즘 그는 잠시 그의 생활을 잊고 취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두달동안 자신의 직업을 꿈꿔보고 그에 맞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방학을 보내는 대학생 유형은 이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당신은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작은 B였는데 A로 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 C였는데 A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혹은 아직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하루를 깊숙이 들여다본다.

A는 오늘도 12시에 기상했다. 일어나서 멍하니 소파에 앉아 반사적으로 TV를 켜다. TV를 보다보니 어느덧 3시.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다. "OO야, 나와! 놀자" 늦은 밤까지 친구와 함께인 그는 정오가 되어 일어난다. 나날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방학이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에게 방학은 '즐거움' 시간이다.

B타입의 강아령(사회학과 1) 학생은 오전엔 토익공부 오후엔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저녁엔 적당한 운동도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녀는 "Time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 사람들과 만나 영자신문인 Time지의 기사를 몇 가지 뽑아, 독해하고 토론하면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월에는 신제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영어반 아이들을 돌봤다는 그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했다"며 "아이들을 돌봤다가 보다 같이 놀고 그 시간을 함께 즐기곤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타입의 장연수(토목환경공학 4) 학생은 'YWCA 제주 민들레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민들레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곳이다. 이는 선생의 권유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된 그녀는 취업준비에 바쁘지 않다는 질문에 "내가 시간이 날 때 위주로 봉사활동을 가게 돼, 장기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2박 3일로 아이들과 여름방학캠프를 갔었는데 함께 즐기고 놀면서 보람을 느꼈다"며 "주변에서 이런 프로그램(민들레학교)을 찾아서 동료들과 참여하면 좋은 경험도 되고 보람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B

타입의 이들에게 방학은 새로운 사회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C타입의 오대관(사라캄스 초등학교 4) 학생은 임용고시 준비로 오늘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7시에 일어나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복습과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2시가 되면 밥을 먹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인터넷 강의를 듣는 '먹고 공부'하는 하루를 반복하고 있다. 방학이지만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언제나 새벽 1시에 취침하는 그는 "임용고시를 합격해야하니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두달 동안의 방학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잠시 접어두고 '준비하는' 시간이다.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 A, B, C 모두 같은 시간의 방학이 주어진다. 세 종류의 사람 외에도 더 많겠지만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 누구도 더 낫다 부족하다 말할 수 없다. 확실한 건 방학이 끝난 후의 그들의 삶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다.

계산해보면 대학생 4년 중 대략 2년 남짓한 방학생활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방학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가 심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서 '쉬다'는 의미를 개화 후 다시 사람답게 숨을 '쉬기' 위해, 잠깐 다른 생활을 해보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즉, 새로운 경험, 혹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 갈망을 하는 시간이라고 말이다.

약 2년간의 방학은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당신의 소중한 긴 방학을 알차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강소진 기자

■ 외국어교육원-여름방학 초등 영어캠프

“영어와 꽤 친해졌어요”

외국어교육원(원장 김선희 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영어대화로 가득 찼다. 마치 외국에 온 듯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여름방학 초등 영어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이다.

'영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내·외국인 강사들과 제주대 학생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초등학생들은 캠프에 참여해 영어를 높이처럼 즐기고 있다.

올해로 18회가 된 영어캠프는 매년 개최되는 만큼 제주대 영어캠프만의 노하우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매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이며 선착순으로 90명의 초등학생 3~6학년 학생을 받고 있다. 남학생 41명과 여학생 49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많은 학생들의 열기로 캠프신청이 6월 부터 조기 마감 됐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제주대의 유명한 강사들이 함께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이 캠프는 원어민 선생 10명, 한국인 선생님 1명, 제주대에 재학생 중 조교 및 코디학생 8명, 행정실의 스태프 및 조교 4명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캠프에 오는 첫날 맞춤수업을 하기위해 시험을 치르고 6반으로 나뉘어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번 영어캠프는 'English in English'라는 구호로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사용 시에 감점을 받는 등의 수칙을 정했다. 이는 참여 학생들에게 외국에 온 것처럼 자연스레 영어와 친숙해지

는 기회가 됐다. 수업은 문화, 퀴즈, 요리, 체육, 요가, 영화, 팝송, 역할극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갖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를 직접 상황에 맞닿아 배울 수 있어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영어 캠프의 수업 중 하나인 English Pop-song 시간에는 팝송을 배우는데, 곡을 배우기 전에 원어민 선생님의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설명을 통해 학생들은 더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쉽게 익힌다. 이와 같이 쉽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은 수업내내 즐겁고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배재한(백신초 3) 학생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Movie&Drama"라며 "영화를 보고 문제를 푸는 수업방식이 학교와 달리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었다"고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주말프로그램(Field-Trip)은 원어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어와도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 조교로 참가한 오지훈(영어교육과 3) 학생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즐겁지만 때때로 아이들을 통솔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초등학생의 경우엔 아직 독립심이 부족한데, 이번 캠프를 통해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독립심도 기르는 아이들을 보면 내심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어캠프에서는 캠프과정을 마치면 과정수료자에게 수료증, 메모리앨범과 CD를 제공해 아이들의 추억도 만들어주고 있다.

강소진 기자



지난 8일 외국어교육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팝송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소식

제주대 음악학과 콩쿠르

일 시 : 8. 22 (예선)
8. 23. (본선)
장 소 : 음악학과
문 의 : 제주대 음악학과
754-2790

서귀포로 오는 이종섭 가족'展

일 시 : 8. 1. ~ 9. 20.
장 소 : 이종섭미술관
주 관 : 이종섭미술관

문 의 : 733-3555

울릉도, 독도 고지도 전시회

일 시 : 8. 4 ~ 9. 18.
장 소 : 해녀박물관
주 관 : 울릉군 독도 박물관
(해녀박물관)

문 의 : 710-6644

2008 상설 토요예술 한마당

일 시 : 8. 23 오후 7시 30분

장 소 : 한라수목원 야외무대

단체명 : 제주양상블 드림

공연내용 :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음악, 팝음악 등

문 의 : 754-5252

유기구라모토의 Memory of Love-제주

일 시 : 8. 30. 오후 7시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A
문 의 : 02) 720-8500

제7회 제주영화제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제주코리아극장

주 최 : (사)제주씨네아일랜드

개막식 : 8. 22. 오후 7시 30분

제주코리아극장

상영관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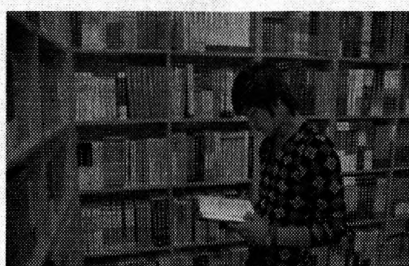
제주코리아극장 등

문의: 제주영화제 사무국

702-1191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 TEL 754-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무문유설

국민신뢰 잃은 MB정권과 대학생의 역할



허남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가. 경제대통령이 들어서 나라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기대는 낙담으로 바뀌고 이제는 혐오와 분노만이 들끓고 있을 뿐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벗어난 촛불정국을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자기 측근을 공적 자리에 앉히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것 정도가 아닐까.

쇠고기 문제와 촛불정국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아우성인가. 국가가 서민 생존의 문제와 생계를 너무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고, 국가가 너무 미국에 대해 비굴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서민의 삶보다는 기업과 재벌의 편에서 서서 70년대식 개발독재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기업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고,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자는 희생되어야 할 존

재로 인식한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면서 보수정권과 재벌이 결합하여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경 보존이나 지역 균형발전의 규제는 다 날려버려야 한다고 여기고, 노동쟁의는 반드시 공권력으로 막아내고, 임금이 싼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는 길을 택했다. 기업이 잘 되면 나라도 잘살고 일자리도 많아지는가. 기업이 잘 되서 이익이 많아지면 임금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여, 공장을 중국시장과 같은 해외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다. 기업은 더 이상 민족과 공동운명체가 아닌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글로벌 경영을 위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체다.

현재 비정규직이 남자는 45%, 여자는 65% 수준이다. 보수정권과 재벌의 눈에 서민은 없다. 과거 봉건시대에 신분제로 상하가 나뉘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주도권을 권상층부가 가난한 하층 사람을 편먹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명문대 입학에 목숨을 걸고, 대학생들은 사립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신분상승이 쉽지가 않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속으로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너무 많다.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자극에 시달리고, 100대 1이 넘는 공무원 시험 경쟁에 막막해 한다.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을 줄여 안정적인 정규직을 늘리

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복지 재정을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확장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국가가 적당히 해야 한다. 특히 군사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 통일비용을 어떻게 남한이 감당할 것인가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분단비용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남북문제가 막히고 여전히 북한은 위협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안위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주둔군의 방위분담금을 5조 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속 아파트나 시설 지원금으로 5조 원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미군이 재고 무기를 우리나라에 떠넘기려 하고 이를 떠안기 위해 5조 원을 퍼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표면이고 군비 증액은 이면이다. 우리가 미국에게 비굴하게 군다는 것은 쇠고기 문제라기엔 더 심각한 것인데, 그 내면에는 국방의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진하면서 미국에게 비굴하게 처야 하는 상황이 감춰져 있다.

6개월 동안의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우리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정규직에 당당하게 취업하려면 이 두 가지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 FTA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절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재벌 기업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 분단의 대결 국면 때문에 여러분은 학업을 중단하고 2년 넘게 군대에서 고생하고 돌아와 백지처럼 새하얗게 변한 머리 속에 영어 단어를 다시 채워넣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특권층 자녀들은 미국 유학으로 실력을 쌓으며 상류층 복귀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저만치 바닥을 기고 있다.

정규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일자리와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할 길이 열린다. 복지 예산을 늘리도록 요구해야 가능한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싸워 얻어야 한다. 여러분이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국가도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방학 동안 더위와 싸우며 취업 공부에 여념이 없는 우리 대학생들 보면서 그들이 비정규직으로 팔려갈 모습에 안쓰럽다. 잠시 쉬는 동안 올림과 중계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기를 꿈꾼다. 그들을 깨어날 줄 수 있는 개관천천 정권을 기대한다.

사설

도덕성이 경쟁력이다

토플러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공교육을 학교공장(school-factory)이라고 비판하였다. 미래세대(컴퓨터 세대)의 교육은, 개인 대 개인의 학습으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프로슈머의 창조 생산적 교육, 즉 스스로 학습(self-teaching)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 비공식적으로 지식을 전수받는(guru-teaching) 교육 방식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교육의 변화에 일조하고, 미래의 부(富) 창출시스템의 성장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부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금의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토플러의 부 개념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요즘 올림과 응원으로 무더위가 무색하다.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국민들의 가슴에 내재해 있던 애국심이 발동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4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선수들의 수상 소감과 노력의 대가에 박수를 보내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 노메달 선수들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무관심하다. 우리의 눈높이가 '최고'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말고사 부정행위로 무대학 대학생들의 징계 사실이 보도되었다. 지성의 전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정에 무감각하고 도덕성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에 누가 물을 던질 수 있을까. 메달을 위한 노력보다 메달의 색깔을 중시하고,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교육의 본질 운운하는 것이 초라해 보인다. 대학교 강의 과정보다 성적이란 결과를, 어떻게 성적을 얻느냐보다 무슨 성적을 얻었느냐를 중시한다.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았다. 그럼에도 교육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교육(敎育)의 사전적 의미는 '교육자의 지식·이해·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과정'이다. '설문해자주(說文解字)'에 의하면, '교(敎)'는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본받는다(上所施 下所效)', '육(育)'은 '자식을 길러 착하게 한다(養子使作)'

善也)는 말이다. 요컨대,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르쳐 이끈다는 것', 그것이 '선(善)을 지향한다'는 두 가지를 함축한다. 즉 도덕교육인 것이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오늘날 '선(善)'을 교육의 본질로 제시하는 것이 시대에 뒤쳐진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도덕성과 가치관이 상실된 교육은 사상누각을 면치 어렵다. 기초보다 실용에, 질보다 양에,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하고서 얻어진 학문은 바닥이 드러나는 속빈 강정이다.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결과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결과는 미미하나 고난의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모두 긴 인생의 디딤돌이다. 대학 교육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에서 기본은 무엇인가. 바로 인문교육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인문 관련학과를 폐지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인문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긴 안목에서 인문학적 사고야말로 경쟁력임을 제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가 인문학 최고지도자 과정(AFP, Ad Fontes Program)을 통해 재계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한 것도, 인문학 소양이 경쟁력이고 리더십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 결과이다.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할 때에 경쟁사회 속에서 도덕성 상실을 막을 수 있다. 도덕성 없는 경쟁은 투쟁일 뿐이다.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매꾸기 신세였던 적이 많았다. 도서관의 자리 부족과 새벽부터 줄서서 자리를 잡아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농장을 피운 날은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누군가 벽에 대자보를 붙여 고정석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에 동참 글들이 붙더니, 빈자리에 강의시간과 빈 시간을 알리는 메모가 붙어 그 시간만큼은 눈치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매꾸기의 탄생은 경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도덕성과 조화의 결과이다. 누군가는 지금처럼 취업 경쟁이 심하지 않았으니 가능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특별기고

대학 영문표기 변경 혼란초래 우려



송현선
통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제주대학교의 영문 표기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Cheju National University'에서 'Jeju National University'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영문 명칭 변경의 이유는 첫째, 세계자연유산인 'Jeu'의 브랜드 가치 이용, 둘째 행정상의 불편, 셋째 도민 정서와의 괴리 방지 등이 주로 제시된다. 그런데, 향후 '제주'의 로마자 표기법이 바뀔 경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 현재 명칭 변경의 이

유들이 또다시 새로운 명칭 변경의 이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글 로마자 표기법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왔다. 1984년에 고시, 시행한 표기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자, 16년 후인 2000년 7월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고시, 시행되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시행으로 '제주'의 표기는 'Cheju'에서 'Jeu'로 바뀌게 되었다.

문제는 현행 표기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과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표기법이 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역사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역사 인식 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고구려'나 '발해'의 경우, 이전 표기법으로는 각각 'Koguryo', 'Parhae'로 표기되었으나, 현행 표기법으로는

'Goguryeo', 'Balhae'로 표기되는데, 'Koguryo', 'Parhae'를 사용한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중 많은 수가 이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 측의 논리를 이해하거나 소개하려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볼 경우, 이처럼 다른 표기법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현행 표기법을 개정하지는 주장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으므로, 표기법이 혹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제주만은 현행 표기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전에 등록되었던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이 현행 표기법이 시행되면서 모두 표기법을 바꾸었던 예를 생각하면, 제주만 예외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제주'의 영문 이름 'Jeu'가 언젠가 다른 표기로 바뀐다면, 추진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과 변경 후의 홍보 노력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베이징대학은 백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58년 중국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되어, 베이징은 'Beijing'이 되었으나, 베이징대학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Peking'을 영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명칭이 갖는 대표성과 역사의 연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도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 왔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로마자 표기법에 기대어 대학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Cheju National University'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제7회 전도 고교 논술경시대회 대상작

문화우월주의의 보다 보편적 가치창출이 중요



남병필
남병고 3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활자 인쇄술 개발에 열을 올렸다. <직지심체요절>은 조상들의 인쇄술에 대한 노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청주시를 방문하게 되면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안내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안내문에는 '쿠엔베르크의 금속 인쇄물보다 200년 앞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읽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를 만들 때 우리에게 타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느끼라고 만들었을까?

우리 조상들은 많은 불경을 인쇄해에만 했다. 많은 불경을 인쇄하다 보니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해야만 했고, 그 결과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기술은 필요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다. 직지,

촉우기, 거북선 등. 모두가 농경 중심의 사회, 국난 타개의 순수한 필요에 의해 제작된 것이지만,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 제작된 것은 아니다. 고로 이와 같은 유산을 민족의 우월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 보도록 하자. 이는 우리나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옆나라 중국의 예를 들어보자. 중국은 훨씬 예전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 즉, 화이론을 주장해 왔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변 국가들은 오랑개 취급을 했던 것이다. 한족 우월주의를 표방하던 중국은 자신들의 왕을 천자라고 칭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주변 민족들에게 내세웠다. 세계사적 보편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 의해 반식민지화를 당하는 굴욕을 겪게 된다. 결국 한족의 우월성을 드높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려던 화이론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몰아매어 세계의 조류에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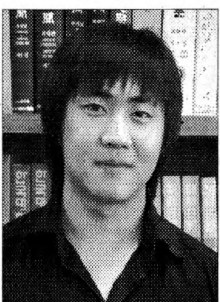
물론 나는 직지심체요절이나 한족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직지심경은 금속 활자본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한 시초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다. 직지,

한족 또한 활자 문명 이래로 유구한 역사를 유지해 온 능력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직지를 통해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은 한낱 일제치하의 과거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통치를 받을 정도의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는 불분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문화 장벽을 쌓은 채 자신들의 문화의 우월성만을 드러낸다면 자승자박의 형세를 맞이한 18C의 중국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자문화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문화화를 통해 자기를 우월시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자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가는 도태되기 십상이다. 앞으로는 자신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특수성 못지않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이다. 우리 민족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만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잘 해내고 있다.

김치, 태권도, 난타 등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잘 조리한 예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통해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잘 적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향한 촛불집회 계속돼야



송현선
메카트로닉스전공 3

촛불집회를 시끄럽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집회참가자들을 나라발전은 방해하는 요소로 포함시켜 버린다. 올바른 나라의 운영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잘못이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보수주의에 찌든 그들의 말처럼 정부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없이 개미처럼 일만 한다면 나라가 저절로 발전할 수 있을까? 국가발전을 위해 대통령에게 신의를 주고 국가 운영을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을 믿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국민들의 마음에 서민들은 이미 사라졌다. 촛불집회 그 자체가 아니다. 그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시위의 목적과 명분이 정당하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 걸음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물을 수도 있다. 당연히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위대가 폭력을 쓴다면 경찰도 마땅히 폭력으로써 제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시위대의 폭력을 용인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의 목적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폭력성만을 말해서 안 된다. 시위대의 폭력은 처벌하되 국가의 의무 집회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폭력시위의 원인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잠가 두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힘으로써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와도록 정책을 펴면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몰대포와 군화발로 대하는 정책은 그

민위가 한다. 국민들은 정부를 꾸짖을 권리가 있으며, 시위를 할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예전 소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였던 국민들이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온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따지면 좀 이상한 논리이지만, 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헌신했을 때라도 볼수도 있겠다. 다만 독재 시절의 대통령들과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역사의 한 모퉁이에 악역의 모습으로 남아있었던지 말아야 한다.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들이 직접 쓴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활동 체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세요.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자제보도 받습니다.

문의: 754-2279, ju88@chej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cheju.ac.kr

재미제주인 양계복씨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

재미제주인 이신성 작가

“자긍심 갖게 하는 재외도민
향토학교 활성화 됐으면”

“제주는 꿈의 나라
내 자신이 태어난 아름다운 곳”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의 가족들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처음 미국생활은 LA에서 시작했다. 5개월 뒤 그녀는 LA인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었다.

“저는 적지 않은 나
이로 회사에 취직하
려 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이력서를 넣
으면 그 회사의 사장

있는 곳이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바다낚시를 자주 갔었죠.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당시의 기억은 엇그제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바다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그녀는 “나의 이민생활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기반을 잡았고, 성실한 남편과 아들이 있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한다. 성공이란 단어 뒤에는 많은 격고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다 견뎌낸 그녀가 요망진 제주여자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이민생활의 성공을 당연히 말하는 그녀의 성공에 기저는 박수쳐 주고 싶다.

■ 2세/을 위한 프로그램

양씨는 슬하에 2남매를 두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과대학으로 옮기게 됐다. 현재 UCSD(UC San Diego)에 재학중이다. 그는 일본, 스페인 등 외국어에 능통하다. 작년 여름 함포학교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못하는 재외 제주인들의 불만을 도맡아 했다. 둘째아들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작년 여름 향토학교를 다녀온 뒤 아이들은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향토학교와 같은 2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향토학교는 2세대에 게 제주에 대한 애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향토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넌지시 말했다.

향토학교는 2세들에게 제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애정을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2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향토 학교로만 제한 됐다. 향토학교를 참여한 학생들은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프로그램 개

재미제주인 양계복씨(51)는 7남 2녀중 장녀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4살 때 가족 모두 제주로 건너오게 되었고 그 이후 재주 씨들은 동문동생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지 약 8년이 지났다. 2000년도에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 그러나 이민 초기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이민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제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생각을 실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넘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미국 전역을 관광하며 좋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신기함과 희망은 2주 뒤에 적잖은데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처음 여행비자로 건너왔다. 미국에서 정착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했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당시 저의 남편은 보증인의

이 저보다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좋은 사장님을 만나 취업을 하게 되었죠”

■ 고향 제주에 대한 추억

“안되면 되게 하라”는 육군 특전사의 정신이다. 이는 어떤 악조건 속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특유의 정신이 무엇입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육군 특전사의 정신을 꼽았다. 이같은 특전사의 정신과 비슷한 제주도 사람들의 끈기라고 말했다.

“저는 한국인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이 미국인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제 주인의 끈기가 미국인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주도 여자는 강합니다. ‘요망치다’는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여자들은 요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긍지와 제주도여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녀의 어릴 적 추억이 묻어



행사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3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그는 "1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은 고향 제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한국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향 제주까지는 그러한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남가주 특별자치도민회 같은 향토회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씨는 “2~3세대들에게 향토회 행사는 고향 제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서 “향토회 행사 가운데 고향 제주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특별자치도에 바라는 마음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씨도 제주가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라 하면 어떻게 보
면 좀 더 자율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율적이라는 것은 비
율대로 내려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는 좁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돌
려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
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자치라는 행정체제에 장점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씨는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씨는 “2002년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제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

요한 만큼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며 배우는 벤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사람들은 섬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그는 “제주는 특별한 국인 만큼 제주인들이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 의식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들이 모여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하는
그에게서 제주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
진다.

어떤 물건을 볼 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면 명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그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을것이다. 제주도를 가까운 곳에서 보는 우리보다 어쩌면 멀리서 바라보는 그가 제주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음지도 모른다.

오미숙 기자

제주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주대학교가 새로운 역사, '제3창학'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제3창학

- 2008. 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확정
- 2008. 3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 2008. 3 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 개원
- 2008. 3 수의과대학 신설
- 2009. 2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개원 (3차 진료기관 시대 개막)

이제는 "전국 명문대학 20위권 진입"이
목표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